With KAU Webzine

Thirty steps

하늘에 남는 길 새내기가 그릴 길

새내기성공센터

목차

With KAU 함께 이루는 꿈

새내기성공센터 뉴스인사이드
일상기술미니특강 : KAU Wine Day (II) ····· 2

2023-1 재학생 멘토들의 멘토링 이야기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우기 뽀로로” ····· 3
항공전자정보공학부 “GPS” ····· 4
신소재공학과 “ONE소재” ····· 5
소프트웨어학과 “소학쏘핫” ····· 6
스마트드론공학과 “뼈없는 막걸리” ····· 7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알파” ····· 8
공학계열 “성휘와 아이들” ····· 9
항공교통물류학부 “드림(DREAM)” ····· 10
항공운항학과 “일석이조” ····· 11
경영학부 “말랑카우” ····· 12
자유전공학부 “지구는 자전” ····· 13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추천 도서 소개
작별하지 않는다 : 한강 장편소설 ····· 14

With KAU 멘토&멘티 참여코너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A I! can do it"팀 ····· 16
신소재공학과 "바라박바박“팀 ····· 20

12월 웹진 퀴즈 이벤트
With KAU 웹진 퀴즈 풀고, 리뷰를 남겨주세요 ····· 25

새내기성공센터 2024년 1월 일정
이달의 행사 일정 ····· 28

표지 [ⓒ한국관광공사 사진갤러리 - 이준혁] 저작권
[촬영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With KAU 웹진은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상기술 미니특강 KAU Wine Day (II)

새내기성공센터는 일상기술 미니특강으로 'KAU Wine Day (II)'를 진행했다.

'KAU Wine Day(II)'는 9월에 실시한 와인특강의 연장선에서 비즈니스 와인 에티켓을 배우고 스파클링, 화이트, 레드와인 시음과 치즈와의 마리아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강은 와인라벨 읽는 법, 오픈방법, 적절한 글라스 선택과 잡는 법 등 비즈니스에 활용 가능한 에티켓과 와인별 테이스팅 후 품종의 기본특징을 배우고 치즈와의 마리아주를 경험하며 조별로 토의 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 참가한 참여자는 "그동안 진행했던 비교과 프로그램 중 최고로 만족했고 흥미로웠던 시간이었고 평소 얕은 지식만 갖고 있어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 했던 와인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며 "세 번째 와인특강을 기다리며 좋은 경험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 "와인에 대해 아는 지식이 없었는데 화이트, 레드와인의 종류 그리고 여는 법, 와인의 산도와 타닌, 바디 등 전문 용어에 대해 강사님께서 쉽고 친절하게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와인 3종류와 치즈를 직접 먹으면서 들으니 더욱 이해가 잘 되었다. 또, 조별로 와인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고 참여소감을 전했다.

새내기지원팀장은 "이번특강은 KAU 학우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고, 와인의 견문을 넓히는 기회로 미니특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며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일상기술 미니특강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우기 뽀로로”

새내기 친구들을 처음 만나기 전 카톡방에서 서로 얼굴도 모른채 즐겁게 떠들며 앞으로 무엇을 하며 놀지 생각하는 모습이 뽀로로를 연상케 하였다. 또한 20살 새내기 시절에 어렸을 적 재미있게 보았던 뽀로로 같이 동심으로 돌아가 다같이 화합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쌓자는 의미로 팀명을 정하였다.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 우기뽀로로

활동목적

☆ 새로이 대학교에 들어온 멘티들이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하도록 함

☆ 멘티들의 한 번뿐인 새내기 추억 만들기

참여소감

▫ 멘토 : 먼저 연락해서 “커피사줘요, 밥 사줘요, 놀러가요” 하는 새내기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으니 좋은 대학 선배라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좋은 형, 오빠는 된 게 아닐까 싶다. 이거면 됐다. 만족한다. 2학기에는 더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강윤이, 지섭이, 한경이, 현호, 준식이, 소연이, 수민, 시연이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 멘티 : 늘 투덜거리지만 해달라고 하는 건 다 해주는 우리 멘토 중규 오빠 덕분에 학교 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도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부터 항공대에 오고 싶었는데 오기 잘한 것 같아요.

항공전자정보공학부 “GPS”

Great Possibility Students;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의 gps가 되겠다는 의미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 GPS

활동목적

☆ 새내기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위하여 시간관리 노하우 전수
☆ 다양한 활동을 통한 멘토 멘티간의 우애 형성

참여소감

▫ 멘토 : 한 학기의 멘토링이 또 끝이났다. 대면활동이 완전히 활성화 되면서 멘티들끼리 서로 친해지는데 작년에 비해 수월했던 것 같다. 또한 남자 6명인지라 서슴없이 장난을 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았던 것 같다. 다들 너무 잘 따라와줘서 고마웠고,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의 학교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

▫ 멘티 : 내가 고등학교 2학년때 방과후 수업에서 수학을 가르쳐주던 선배를 학교에 입학해서 선배멘토로 만나게 되었다. 덕분에 학교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선배와 더욱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매우 좋았다.

신소재공학과 “ONE소재”

‘ONE소재’팀은 소재분야에서의 최고가 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있음.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 ONE소재

활동목적

☆ 새내기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
☆ 신소재공학과에 대한 정보 습득과 흥미 증가

참여소감

▫ 멘토 : 멘티들 덕분에 더욱 값지고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 후배들을 앞에서 이끌며 뒤에서는 밀어주는 역할이 충분히 되었을지는 모르겠으나, 도움이 되었길 바라는 마음이고 2학기 때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멘티들에게 새내기 생활 적응에 있어 버팀목과 길라잡이가 되고싶다.

▫ 멘티 : 학기 초 시간표 짜는 것부터 사회에 발을 들이는 것까지 작은 것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멘토님과 멘티들의 도움으로 쉽게 이 어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다. 2학기 때 이러한 활동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발전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싶다.

소프트웨어학과 “소학쏘핫”

소프트웨어학과 중 쏘 핫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 소학쏘핫

활동목적

☆ 다양한 활동들을 통한 선배와의 교류 및 추억 쌓기
☆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꿀팁 전수 및 플래너 습관 형성

참여소감

▫ 멘토 : 처음으로 멘토멘티 활동의 멘토로 참여했는데 새내기 멘티 친구들의 대학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서 좋았다. (mbti 특강, strong 특강, 멘토멘티 명상디톡스 대회 등) 또한, 새내기 멘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 시험기간에 공부독려를 하고 공모전 참여를 도와주었는데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되어 2학기 활동도 기대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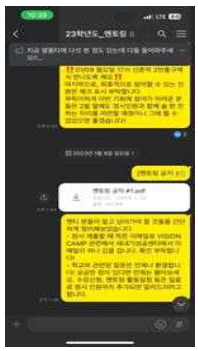
▫ 멘티 : 대학에 들어와서 낯선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이러한 멘토링 활동을 통해 자연스레 적응할 수 있게 되어 나에게는 매우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스마트드론공학과 “뼈없는 막걸리”

개강 전 모임에서 멘토가 술을 먹고 말실수를 했는데 재미있어서 선정하게 됨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 뼈없는 막걸리

활동목적

☆ 오랜 입시를 끝내고 해방감을 느낄 멘티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기

☆ 재미있게 놀되, 학점도 챙길 수 있게 옆에서 돕기

참여소감

▫ 멘토 : 멘토로 멘 티들을 베이비시팅하는 것이 정말 힘들겠다고 생각했었지만 실제로는 힘들다기보다는 할 일이 많아지고 귀찮은 느낌이 들었음. 하지만 생각보다 내가 무엇을 알려주고 보람을 느끼 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이고 재미있었음.

▫ 멘티 : 대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나였지만, 멘토 멘티 라는 활동에 있었기에 든든했다. 같은 과 동기들과 선배님들 의 경험에 기반하여 학교 생활의 기틀을 잘 다듬은 것 같다.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알파”

알파팀은 AI코딩로봇 이름으로 AI코딩에 대해 많이 알아보자는 의미를 지님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 알파

활동목적

☆ 신입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1년을 만들어주기 위한 멘토의 노하우 전수

☆ 다양한 활동을 통한 동기, 선배 간의 친목 형성

참여소감

▫ 멘토 : 작년 멘토멘티 활동을 경험삼아 처음 이끌어 본 멘토활동은 생 각보다 재미있었고 새내기들과 먼저 친해질 수 있어 좋았다.

▫ 멘티 : 익숙하지 않은 대학 생활 속에서 멘토님과 같은 과 동기들과 인생에서 행복한 대학 추억을 쌓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 멘티 : 미숙하고 낯선 새내기로 입학한 대학에서 선배님과 함께해 별 문제 없이 무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들이 더욱 기대됩니 다.

공학계열 “성휘와 아이들”

멘티는 멘토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멘토의 이름을 붙여 성휘와 아이들이라고 멘티가 정해주었다.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 성휘와 아이들

활동목적

☆ 새내기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추억만들어주기
☆ 많은 활동을 통한 멘토 멘티간의 신뢰 형성

참여소감

▫ 멘토 : 새내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발랄함과 해맑음 덕분에 3학년 1학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자주 만나서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 싶었는데,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활동 계획서에 단순한 멘토가 아닌 친한 언니 누나가 되고 싶다고 썼었는데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 멘티 : 처음부터 친근하게 다가오는 선배 덕분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편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점점 친분을 쌓으며 함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으며 또한 공부에 관련된 것들과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공지들에 대해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아 좋았습니다.

항공교통물류학부 “드림(DREAM)”

새내기들의 꿈(드림)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포부를 담은 이름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 드림(DREAM)

활동목적

☆ 멘티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며 진로 탐색을 돕고 함께 성장함.

☆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멘티간의 관계 형성을 도모

참여소감

▫ 멘토 : 멘티일 때 제가 받은 것만큼이라도 후배들에게 흘려 보내주기 위해 여러가지 활동을 제안할 때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은 리액션으로 화답하는 멘티들을 만나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2학기 때는 보다 다양하고 알찬 활동을 기획하여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멘티 : 처음 타지 생활하면서 서투른 것도 많고 힘들었는데 멘토멘티 활동하면서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학기에도 더 많은 활동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항공운항학과 “일석이조”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 일석이조

활동목적

☆ 멘토의 학교 생활 경험을 토대로 한 새내기 생활 노하우 전달
☆ 활발한 활동을 통한 멘토 멘티 간 유대감 형성

참여소감

▫ 멘토 : 새내기 후배들과 친해지고 싶다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해서 만족스럽다. 재학생멘토에 지원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비행 일정이 허락한다면 내년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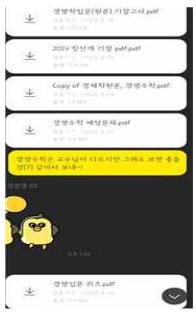
▫ 멘티 : 이번 학기 활동을 참여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멘토님이 저희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학교 생활을 많이 알려주셨다. 대학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지만, 선배님이 쉽고 재밌게 알려주셔서 재밌는 한 학기를 보냈다. 선배님 덕분에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경영학부 “말랑카우”

남녀노소 인기있는 (캔디류) 말랑카우처럼 모두에게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존재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 말랑카우

활동목적

☆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며 동기 간 넓은 친구관계 형성
☆ 추후에 멘토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재밌는 활동 진행

참여소감

▫ 멘토 : 1학기 멘티들의 참여소감을 보고 ‘아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만남을 주선할걸’ 후회가 들었다. 멘티들끼리도 어느정도 친해졌으니 2학기때는 외부에서도 종종 만나는 친화력 짱 멘토링팀이 되고 싶다. 더 다양하고 활기찬 2학기를 기대하며 2학기에도 말랑카우팀 파이팅!!!

▫ 멘티 : 대학에 다니면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든든한 선배를 만나 좋았다. 멘토 선배가 멘토링 활동에서 즐겁게 분위기를 이끌어 줘서 멘토링 활동이 늘 기대됐다. 또한 대학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듣고, 많은 자료를 받아 대학 생활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자유전공학부 “지구는 자전”

‘자전’ 현상이 없다면 지구가 존재할 수 없듯이, 자유전공학부(‘자전’)가, 그리고 우리 팀이 이번 2023년 3중 멘토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팀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활동목적

▫ 지구는 자전

☆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뿐만 아니라 추억 및 1년간 좋은 기억을 많이 쌓고자 한다.

참여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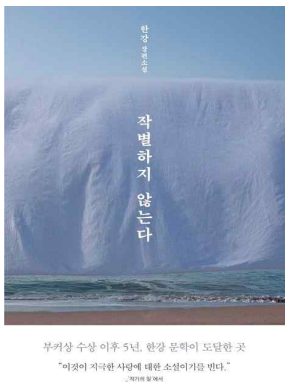
▫ 멘토 : 올해 멘토로서 멘토링을 참석하니, 작년에 멘티로서 멘토링을 참석했을 때와는 또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멘티 후배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1학기였습니다. 우리 ‘지구는 자전’ 멘토링 팀의 1학기가 성공적으로 이륙을 시작하는 시기였다면, 우리의 2학기는 안전하게 이륙을 마치고 앞으로 쭉 순항하는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멘티 : 학교에 입학 후 수강신청, 학점관리, 학과활동 등 낯선 것들 투성이었는데 멘토링 덕분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었다. 특히, 비교과 활동은 관심있게 찾아보지 않으면 놓치기 마련인데 멘토님이 도움될 만한 활동들을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추천 도서 소개

무엇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나.
가슴에 활활 일어나는 불이 없다면.
기어이 돌아가 껴안을 네가 없다면.

이곳에 살았던 이들로부터, 이곳에 살아 있는 이들로부터 꿈처럼 스며오는 지극한 사랑의 기억



이상하지, 눈은.
어떻게 하늘에서 저런 게 내려오지.

『작별하지 않는다』는 소설가인 주인공 경하가 꾸었던 꿈의 장면으로 시작한다. 눈 내리는 벌판, 수천 그루의 검은 통나무가 마치 묘비처럼 등성이까지 심겨 있다. 묘지가 여기 있었나, 생각하는 사이 어느 순간 발아래로 물이 차오르고, 그는 무덤들이 모두 바다에 쓸려가기 전에 뼈들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하지만 어쩌지 못하는 채로 꿈에서 깬다. 경하는 그것이 그 무렵에 꾸었던 다른 악몽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책에서 다룬 학살에 대한 꿈이리라고 생각하고, 한때 사진과 다큐멘터리 영화 작업을 하다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제주로 내려가 목공 일을 하는 친구 인선과 함께 그 꿈과 연관된 작업을 영상으로 만들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그뒤로 몇 해 동안 힘든 시기를 겪고 겨우 삶을 회복하는 사이 계획은 진척되지 못했고, 경하는 자신이 그 꿈을 잘못 이해했다고 마음을 바꾼다.
그러던 겨울 어느 날, 경하는 병원에 있는 인선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는다. 인선이 통나무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두 손가락이 잘려 봉합수술을 받은 것. 곧장 병원을 찾은 경하에게 인선은 갑작스레 그날 안에 제주 집에 가 혼자 남은 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인선의 간절한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길로 서둘러 제주로 향한다. 그러나 제주는 때마침 온통 폭설과 강풍에 휩싸여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작적으로 찾아오는 고질적인 두통에 시달리며, 경하는 가까스로 마지막 버스를 타고 인선의 마을로 향한다. 그러나 정류장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에 있는 인선의 집까지 눈길을 헤치고 산을 오르던 길에서 폭설과 어둠에 갇혀 길을 잃는다.

눈은 거의 언제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그 속력 때문일까, 아름다움 때문일까? 영원처럼 느린 속력으로 눈송이들이 허공에서 떨어질 때,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뚜렷하게 구별된다. 어떤 사실들은 무섭도록 분명해진다.(44~45쪽)

심장이 다시 뛸 거지.
그렇지, 이 물을 마실 거지.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인선의 집에서, 경하는 칠십 년 전 제주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과 얽힌 인선의 가족사를 마주하게 된다. 온 가족을 잃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십오 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아버지와, 부모와 동생을 한날한시에 잃고 오빠마저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채로 언니와 둘이 남겨진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와 함께, 학살 이후의 시간을 살아내며 오빠의 행적을 찾는 일에 수십 년을 바쳐 끝까지 포기하기를 택하지 않았던 인선의 어머니 정심의 고요한 싸움이, 폭설로 고립된 외딴집의 어둠 속에서 희미한 촛불 아래 떠오른다. 빛과 어둠 사이를 가르며 영원처럼 느리게 하강하는 수천수만의 무심한 눈송이들 속에서, 이곳에 있지 않은 사람을

간절히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게 정심에게서 인선에게로, 인선에게서 경하에게로 스며든다.

이렇게 눈이 내리면 생각나.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닌데, 그 학교 운동장을 저녁까지 헤매 다녔다는 여자애가. 열일곱 살 먹은 언니가 어른인 줄 알고 그 소맷자락에, 눈을 뜨지도 감지도 못하고 그 팔에 매달려 걸었다는 열세 살 아이가.(87쪽)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야.
정말 헤어진 건 아니야, 아직은.

작가는 이 소설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작가의 말')고 했다. 그 사랑은 우선 마지막까지 사람과 삶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인선의 어머니 정심의 마음에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저 환하고 따뜻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게 된다. 그 사랑이 지극하고 간절한 만큼 그것은 무엇보다 무서운 고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뻐근한 사랑이 살갗을 타고 스며들었던 걸 기억해. 골수에 사무치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그때 알았어.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311쪽)

인선의 어머니 정심이 일평생 그랬던 것처럼, 인선은 어머니의 삶이 자신에게 스며오는 것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사랑을 외면하지 못하고, 경하 또한 인선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으로 겹쳐지는 것에 힘겨워하면서도 그 마음을 내치지 못한다. "이 눈보라를 뚫고 오늘밤 그녀의 집으로 갈 만큼 그 새를 사랑하지 않는다"(88쪽)고, "이런 고통을 느낄 만큼 사랑한 적도 없다"(152쪽)고 고개를 저으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그 사랑에 손을 내밀어 기어이 고통을 택하는 것이, 그것만이 오직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소설은 말하는지도 모른다. 그것만이 절멸로부터 삶을 지켜내는 길이리라고. 어쩌면 실은 그 부름은 이미 언제나 우리 앞에 와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사랑을 사랑으로 알아보고 그 손을 잡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듯이. 그 앞에 조심스레 손을 내밀 때, 그 마음이 닿은 자리가 눈송이처럼 차갑고 동시에 불꽃처럼 뜨거워 영영 잊히지 않는 것은 한강의 소설만이 전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닐까. 이렇게 한강의 소설이 우리 앞에 와 있다.

작가가 소재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강은 하게 만든다. '5월 광주'에 이어 '제주 4·3'에도 한강의 문장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는 영역이 있었다고 믿게 된다.
학살 이후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한 생존자의 길고 고요한 투쟁의 서사가 있다. 공간적으로는 제주에서 경산에 이르고, 시간적으로는 반세기를 넘긴다. 폭력에 훼손되고 공포에 짓눌려도 인간은 포기하지 않는다. 작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딸의 눈과 입을 통해 전해진다. 폭력은 육체의 절멸을 기도하지만 기억은 육체 없이 영원하다. 죽은 이를 살려낼 수는 없지만 죽음을 계속 살아 있게 할 수는 있다. 작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 곁의 소설가 '나'는 생사의 경계 혹은 그 너머에 도달하고서야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만한 고통만이 진실에 이를 자격을 준다는 듯이, 고통에 도달하는 길은 고통뿐이라는 듯이. 재현의 윤리에 대한 가장 결연한 답변이 여기에 있다.
언젠가부터 그의 새 소설 앞에서는 숙연한 마음이 된다. 누구나 노력이라는 것을 하고 작가들도 물론 그렇다. 그러나 한강은 매번 사력을 다하고 있다._신형철(문학평론가)

With KAU
멘토&멘티 참여코너

3중멘토링 멘토&멘티 인터뷰
“A I! can do it”팀
노연수멘토, 김정혁멘티, 배지한멘티

새내기성공센터에서 시행하는 3중멘토링 프로그램은 신입생과 재학생선배, 외부전문가멘토, 지도교수멘토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KAU 3중 멘토링 멘토-멘티 인터뷰 30호에서는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A I! can do it"팀의 이야기를 담아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인터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 3중멘토링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나요?

노연수 멘토 : 저는 멘토로서 멘티들의 대학생활을 전반적으로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학교의 공지 사항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멘티들을 이끌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추억을 만들고 대학 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김정혁 멘티 : 저는 멘토링 활동이 있을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모든 활동을 참여하는 프로 참석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주최하는 여러 활동들을 멘토링 멤버들끼리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배지한 멘티 : 저로 말씀드릴 거 같으면 처음 만나서 어색하던 시기와 이후 여러 멘토링 활동에서도 항상 팀 분위기를 밝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 메이커로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Q2. 멘토와 멘티의 첫인상은 어떠했나요?

노연수 멘토 : 톡방에서 인사만 나누고 실제로 본 건 새내기 새로배움터에서가 처음이었는데 그때 명찰에 있는 이름을 보고 제 멘티인 걸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제 멘티를 보니까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말도 계속 걸면서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대학에서의 첫 후배다 보니 다들 정말 예뻐보였던 것 같습니다.ㅎㅎ

김정혁 멘티 : 멘토를 처음 본 건 새내기 새로배움터였는데 처음 보고 저희 멘토라는 걸 들었을 때 우리를 잘 이끌 것 같은 리더쉽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멘티 지한이를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선해보였고 저랑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각자의 성격이 제가 본 첫인상과

그리 다르지 않아서 너무 좋다고 느꼈습니다.

배지한 멘티 : (노연수 멘토 첫인상) 개강 전 처음 멘토로서 메시지가 왔었는데 그 메시지에 축하한다는 내용과 모르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물어보라는 말에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처음 만났을 때는 새내기 배움터로 딱 봤을 때 밥 잘 사줄 거 같은 누나처럼 보였습니다. (김정혁 멘티 첫인상) 이 친구 역시 새내기 배움터에서 처음 마주쳤는데 첫 인사말이 너 이름이 뭐냐고 꼭 기억하겠다고 하길래 굉장히 잘 놀고 친화력이 좋은 인싸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Q3. 원활한 멘토링을 위해 하고 있는 노력이 있다면?

노연수 멘토 : 멘티들이 저에게 인간적으로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활동을 같이 하자고 하며 멘토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활동들은 모두 사진으로 기록하고 따로 멘토링 앨범을 만들어 정리합니다.

Q4. 3중멘토링을 1~2학기 동안 수행하셨습니다. 장단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연수 멘토 : 선후배 간 교류의 장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멘토링을 계기로 다양한 정보들이 오가기도 하고 과 선후배들 간 단합력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 멘토링을 할 때 저희 학과 선배가 없어서 저희 학과와 관련된 전문가 분이 많이 안 계셨던 게 아쉬웠습니다.

김정혁 멘티 : 갓 20살이 되어서 처음 경험해보는 대학생활이니까 모르는 점도 되게 많았는데 멘토링을 하면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해진 사람들과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이 좋았습니다. 활동 참가 여부도 자유롭고 재미있는 활동들이 되게 많았어서 개인적으로 3중 멘토링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배지한 멘티 : 장점으로는 수강 꿀팁이나 학교 시설들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학기 초 빠르게 또 깊은 유대를 쌓을 수 있는 친구와 선배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활동이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엑티비티한 활동이 많이 없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Q5. 멘토와 멘티에게 KAU 3중멘토링은 어떤 의미를 주는 곳인가요?

노연수 멘토 : 처음으로 맞이한 후배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저의 새내기 시절을 돌아보기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김정혁 멘티 : 선배와 후배가 친해질 수 있

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게 너무 좋았습니다. 원래 저보다 나이가 많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데, 3중멘토링 프로그램 덕분에 그런 어려움들을 별로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배지한 멘티 : 학교에서는 막상 선배를 마주칠 일이 없어서 선배와 친해질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멘토링 활동을 통해 친한 선배를 만들 수 있었고 멘티들과도 다양한 활동을 하니 학교 생활하는데 더욱 생기를 더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Q6. 3중멘토링을 하면서 변화하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노연수 멘토 : 저는 아무래도 집에서 막내이다 보니 동생들을 대하고 남들을 챙겨주는 게 어려웠었습니다. 3중멘토링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베풀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3중멘토링을 1년간 한 지금은 그러한 사람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김정혁 멘티 : 대학생활에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성격이 혼자서는 이것저것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3중멘토링을 통해서 보다 더 재밌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배지한 멘티 : 전 완전무결하기에 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Q7. 이번달에는 멘토-멘티간 어떤 주제로 대화를 했나요?

노연수 멘토 : 멘티들에게 다음 학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와 새내기 생활이 끝나가는데 기분이 어떤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처음 만났던 새내기배움터를 떠올리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학기가 끝나가는 게 실감이 안 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을 마치고 대부분 군대에 간다고 해서 서로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정혁 멘티 : 다같이 만나서 어떤 활동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서로 생각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배지한 멘티 : 남은 회비로 무엇을 할지와 내년에 휴학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Q8. 멘티가 선배가 되었을 무렵 멘티가 본인을 어떤 멘토로 기억해 주길 바라시나요?

노연수 멘토 : 멘티들을 많이 아꼈던 고마운 멘토로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새내기 시절을 돌아봤을 때 멘토 누나에 대한 고마운 기억이 떠오른다면 저는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Q9. 3중멘토링을 한단어로 표현한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연수 멘토 : “날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새내기들이 3중멘토링을 통해 단 날개로 멋지게 날아오를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김정혁 멘티 : “프로틴”이라고 생각합니다. 3중멘토링은 마음의 근육을 키워준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과 사람들과 보다 더 잘 어울리면서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배지한 멘티 : “지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지지대가 식물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듯이 3중멘토링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아무리 힘들어도 쓰러지지 않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With KAU
멘토&멘티 참여코너

3중멘토링 멘토&멘티 인터뷰
“바라박바박”팀
임혜원멘티, 박정연멘토, 정지수멘티

새내기성공센터에서 시행하는 3중멘토링 프로그램은 신입생과 재학생선배, 외부전문가멘토, 지도교수멘토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KAU 3중 멘토링 멘토-멘티 인터뷰 30호에서는 신소재공학과 "바라박바박“팀의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인터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 먼저, 멘토팀명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정연 멘토 : 저희는 멘토인 제 이름의 성을 따서 ‘바라박바박’이라는 멘토팀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팀 명은 부를 때 리듬감이 있고, ‘박박’이라는 강조의 뜻을 가진 신조어를 지니고 있어 저희를 잘 나타내는 팀명입니다.

Q2. 다른 멘토팀 보다 "바라박바박"팀만이 가지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박정연 멘토 : 저희 팀은 다양한 나이로 이루어져 있어, 더 빠르고 가깝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팀은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더욱 형제자매와 같은 분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혜원 멘티 : 멘토의 다양한 정보 공유와 높은 친밀도입니다. 멘토 선배가 단체 카톡방에 비교과 프로그램과 같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여 제가 놓친 부분까지 챙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같이 하자고 권유하거나, 학교 밖에서의 만남 또한 추진하여 서로가 편안하고, 재밌는 마음으로 멘토링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정지수 멘티 : 비즈니스가 아닌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으로만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친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사이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게 느껴져서 만나는 자리가 심적으로 편안하고 따뜻합니다.

Q3. 외부 전문가 멘토 간담회에서 신상열 동문

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박정연 멘토 : 가장 최근에 졸업하신 선배님이기에 선택한 점이 가장 컸습니다. 선배님께서는 저희와 학교에 다닌 연도가 가장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와닿는 조언을 해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임혜원 멘티 : 우선 저의 학과인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하신 선배님들께서는 어느 길로 나아가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또한, 그 길로 나아가기까지 어떠한 역경이 있었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선배님의 경험담을 직접적으로 듣고 싶어 외부 전문가 멘토 간담회에서 신상열 동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정지수 멘티 :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전공 지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고 싶었는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라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간담회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후회되는 것이나 했으면 좋았을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서 좋았습니다.

Q4. 흥미진진 MBTI 해석특강에 참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박정연 멘토 : 첫 만남에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MBTI를 묻는 시대이기 때문에 본인의 MBTI를 비롯한 MBTI를 더욱 탐구하여 알고 싶고, 멘티들의 MBTI를 알게 됨으로써 멘티들의 성향에 대해 자세히 알고 친밀도를 쌓고 싶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임혜원 멘티 : '나'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스무 살이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MBTI를 통해 내 성격을 비롯한 다양한 성격에 대해 알아보며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또한 기르고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정지수 멘티 : MBTI 특강을 들으면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는 신경을 많이 썼지만 정작 진정한 제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나 자신을 잘 알고 이해해야 앞으로의 진로와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에 MBTI 특강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Q5. 1학기 동안 흥미진진 특강 이외 여러가지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박정연 멘토 : 모든 활동이 기억에 남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처음 멘티들과 만나서 논 것입니다. 서로 어색한 사이에

서 친해지기 위해 다양한 말을 하며 침묵을 깨기 위해 노력했었기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학교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학과장간담회입니다. 학과장간담회를 통해 멘티들이 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졸업하면 무슨 일을 하는지,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근황 등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임혜원 멘티 : 멍 때리기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멍 때리기 대회'라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해보지 않았던 경험이라 새롭게 느껴져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대회 날까지 이 두근거리는 마음이 지속되어 결국 초반에 탈락하고 말았지만, 당시 멍을 때리면서 느껴진 선선한 바람, 따듯한 햇빛, 그리고 심신의 편안함은 하나의 잊지 못하는 추억으로 남겨졌습니다.

정지수 멘티 : 멘토님이 진행하셨던 〈선배에게 길을 묻다〉 프로그램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저는 신소재공학과에 입학하였지만, 학과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소재공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고 졸업 후 진출 분야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외활동이나 학부 연구생처럼 잘 몰랐던 활동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길을 안내해주었던 프로그램이라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6. 이번 3중멘토링을 통해 느낀 점이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박정연 멘토 : 스스로 멘티들과 나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서 거리가 느껴지지 않게 노력했는데, 멘티들이 오히려 더 나를 가깝게 생각하고, 대해주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했다. 또한 1학기에 비해서 휴학 등을 통해 멘토링 활동을 참여하지 못한 멘티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너무 아쉽다. 하지만 그 멘티들과도 연락을 취해서 다시 학교에 돌아왔을 때, 우리 멘토링팀이 반겨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임혜원 멘티 : 새내기에게 3중멘토링은 많은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멘토 선배로부터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와 팁을 제공받으며 학교 생활을 적응해나가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멘토 선배와 사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멘토 선배의 경험, 가치관 등을 들으며 제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보다 뚜렷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지수 멘티 :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선배들이 먼저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조금 감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전공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음을 느꼈고 대학생활을 하면서 멘토님처럼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멘토님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Q7. 겨울방학 기간에 멘토-멘티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은 뭐가 있을까요?

박정연 멘토 : 멘티들과 여행 가기, 봉사 활동하기 등 학기 중 시간이 부족하여 함께 하지 못하였던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멘티들과 종강 후에 함께 근교의 유기견 센터에 방문하여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고, 전라도로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임혜원 멘티 : 겨울방학 기간에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추운 날씨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학기 중에 '사회봉사'라는 과목을 통해 몇 번의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타인을 돕는 기쁨, 뿌듯함, 즐거움 등의 기분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할 때보다 여러 명이 함께할 때, 이러한 감정을 훨씬 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지수 멘티 : 겨울방학 기간에 멘토님과 함께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그 중 하나가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평소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재밌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공 공부 멘토링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방학을 이용해 학업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8. 나의 멘토, 멘티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

박정연 멘토 : 멘티들이 행복한 한국항공대 생활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항공대에서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다양한 학우들을 만나며 여러 감정을 느끼고 경험하며 성장하여 저에게 뜻깊은 멘티가 되길 바랍니다.

임혜원 멘티 : 3중 멘토링 활동이 끝을 바라보고 있지만, 끝이 나더라도 계속해서 만남이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이 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멘토, 멘티 활동의 면목으로 모였기에 비즈니스적인 관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밀감과 유대감이 커졌고, 멘토와 다른 멘티들을 그 사람 자체로 봤을 때, 좋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정지수 멘티 : 멘토 멘티 활동이 끝나고도 계속 연락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친한 선후배로 남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학교생활과 관련해서 도움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Q9. 3중멘토링에 참여하고 싶은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박정연 멘토 : 3중 멘토링에 참여하고 싶은 학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참여하세요! 멘토들이 당신의 좋은 선배가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3중 멘토링의 멘토가 되고자 하는 학우가 있다면, 멘티들과 거리를 가깝게 하여 멘티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멘티들이 선배라는 이유로 멘토를 어렵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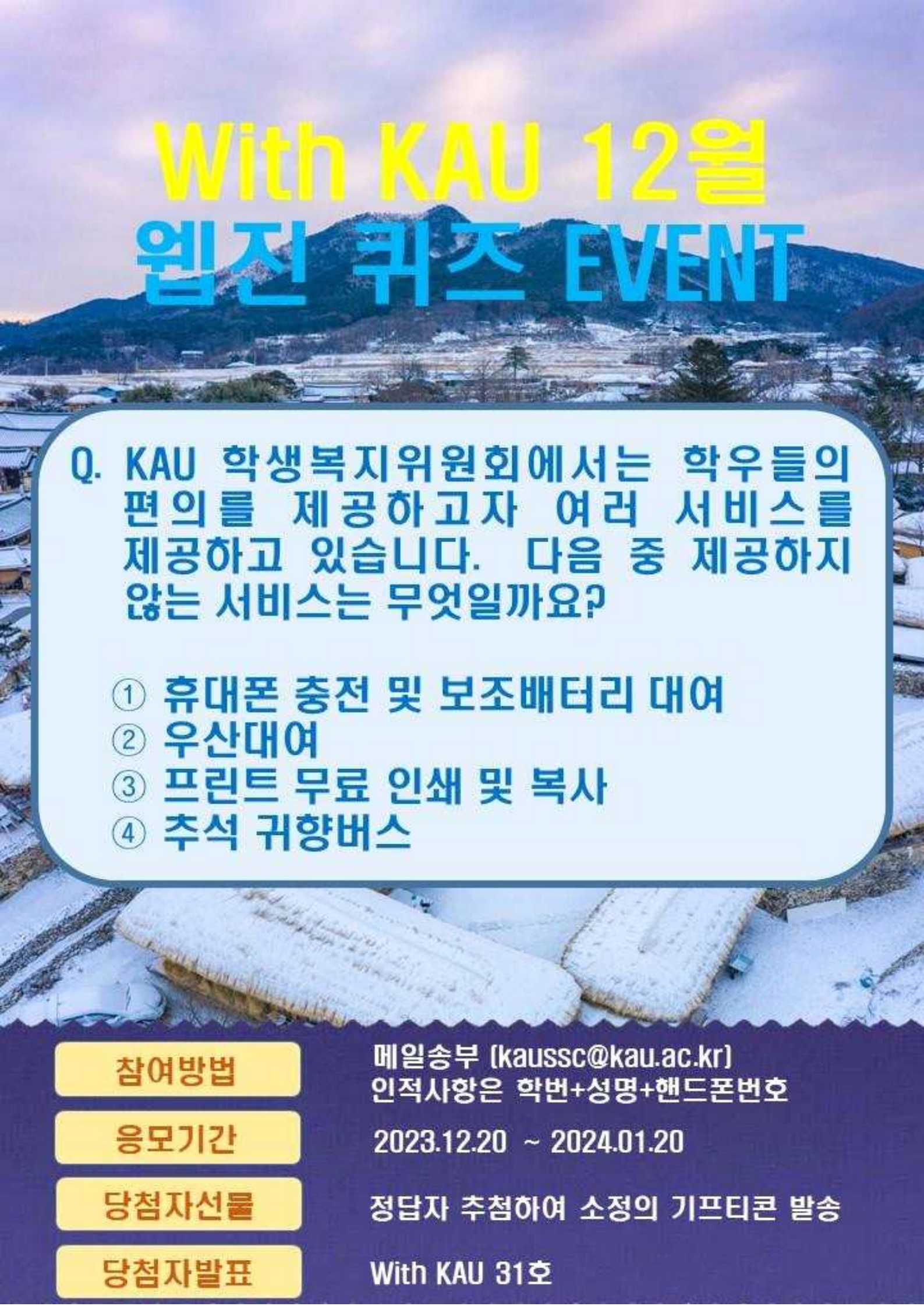
Q10. 멘토-멘티 서로에게 어떤 멘토-멘티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박정연 멘토 : 처음에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

었을 때 도움이 되어주었던 선배. 고민이 있을 때 마음 편안히 털어놓기 좋은 선배, 3중 멘토링 활동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가고,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선배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임혜원 멘티 : 멘티로서 멘토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막상 저는 멘토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해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동안 멘토 선배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본받고 싶은 부분이 많았기에 그저 멘토 선배를 본받고 싶은 멘티 후배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정지수 멘티 : 멘토-멘티 활동이 끝나고 나서도 개인적으로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멘티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만의 길을 개척하여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With KAU 12월
웹진 퀴즈 EVENT

Q. KAU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학우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① 휴대폰 충전 및 보조배터리 대여
② 우산대여
③ 프린트 무료 인쇄 및 복사
④ 추석 귀향버스

참여방법	메일송부 (kaussc@kau.ac.kr) 인적사항은 학번+성명+핸드폰번호
응모기간	2023.12.20 ~ 2024.01.20
당첨자선물	정답자 추첨하여 소정의 기프티콘 발송
당첨자발표	With KAU 31호

With KAU 11월
웹진 퀴즈 EVENT
당첨자

④ 휴학생인 경우

2023****77 이○영　　2023****54 정○철

※ 제출한 핸드폰 번호로 기프티콘 발송

새내기성공센터

With KAU
멘토&멘티 참여코너

With KAU 웹진에 멘토&멘티가 참여하는 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3중멘토링인터뷰, 도전 백주부, KAU 백일장 코너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수록해주세요

코너명	코너소개	참여선물
멘토&멘티 인터뷰	월별 3중멘토링 활동에 대한 인터뷰를 합니다. 신청하신 멘토 또는 멘티에게 센터의 전문멘토가 취재하여 활동내용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도서상품권 (5만원)
도전 백주부	시기에 맞는 요리 및 레시피를 소개해 주세요	
KAU백일장	월별 멘토&멘티가 직접 쓴 독서감상문, 여행기, 수필 등 자유로운 내용을 소개합니다. "내용, 주제 자유"	

응모방법 : kaussc@kau.ac.kr

문의전화 : 새내기성공센터 02-300-0250~1

2024년 1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Plan	2 Plan	3 Plan	4 Plan	5 Plan	6 Plan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대학생활가이드 영상공모전 2차심사				
7 Plan	8 Plan	9 Plan	10 Plan	11 Plan	12 Plan	13 Plan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흥미진진 MBTI 해석특강 01.08~01.10		2024 신입생 VISION CAMP	대학생활가이드 영상공모전 결과발표		
14 Plan	15 Plan	16 Plan	17 Plan	18 Plan	19 Plan	20 Plan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흥미진진 STRONG해석특강 01.16~01.17				
17 Plan	18 Plan	19 Plan	20 Plan	21 Plan	22 Plan	23 Plan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흥미진진 에니어그램 워크숍(19~21)				
21 Plan	22 Plan	23 Plan	24	25	26	27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2023-2 3중멘토링 결과보고서 제출	
28	29	30	31			

[새내기성공센터 유튜브 채널]

With Korea Aerospace University

Follow us:

http://fsc.kau.ac.kr

now

ONLINE

KOREA AEROSPACE UNIVERSITY
FIRST YEAR SUCCESS CENTER